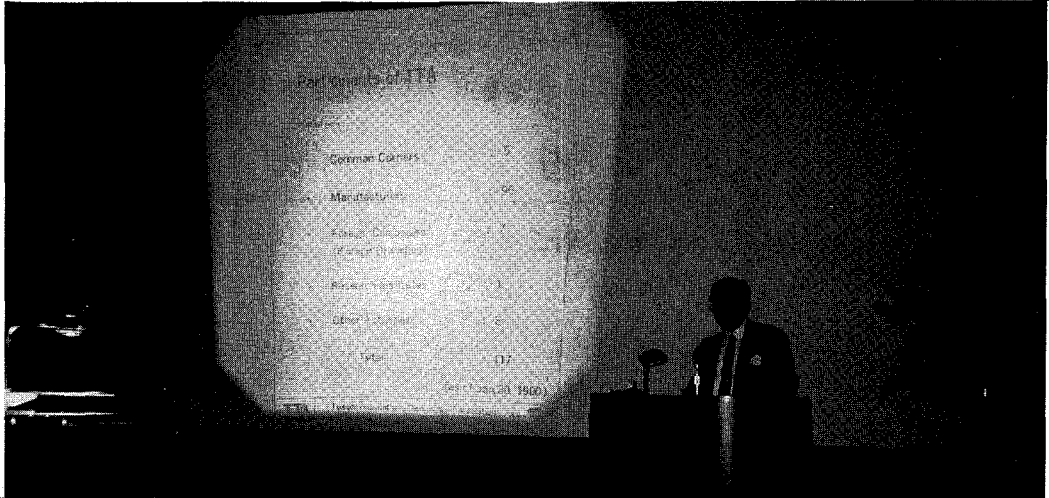


일본 전기통신 표준화 심포지움(STS '90)을 다녀와서



한국통신기술협회 회장 이관하

일본 전신전화기술위원회(TTC) 주최로 90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STS '90에 한국의 전기통신 표준화 활동의 소개발표를 위한 연사로 초청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본 심포지움에는 각국의 민간표준화 기구인 한국의 TTA 및 일본 TTC, 미국 T1 위원회, 유럽의 ETSI와 국제표준화 기구인 CCITT에서 참가하여 해당기구의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참가규모는 약 400명 정도이었으며, 지역표준화 기관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사이었다.

한국의 표준화 활동 소개는 표준화조직 및 참가자현황, 89년 활동실적, 표준화절차, 국가인증제도 개선 내용등이 발표되었으며, 가장 늦게 설립된 TTA의 활동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각 기구의 발표내용의 요지이다.

1. 일본 TTC (표준화위원회 의장 Mr. Kohei Habara 발표)

TTC의 조직 및 활동현황과 각국 표준화기구의 구조적 동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향후 활동방향으로 국제 및 지역표준화 기관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 유지, 각종 통신 기기의 호환성 확인시험을 위한 합리적 방법 모색, 통신용어 표준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2. 미국 T1위원회 (의장 Mr. Ivor N. Knight 발표)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신속한 표준제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

으며, 표준화의 기본방향을 정보교환과 통신이 결합하고 있는 분야에 두고 있다. ITU 및 지역 표준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화 우선 대상으로 TMN, B-ISDN, IN, UPT, AV System을 소개하였다.

3. 유럽 ETSI (부의장 Mr. Frede Ask 발표)

1992년 유럽시장 단일화, 통신시장자유화 등으로 인해 통신기기 접속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TSI가 설립되었으며, ETSI에서 제정된 표준은 권고 표준으로 공표되고 필요에 따라 EC등에 제출되어 강제표준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 ETSI 설립은 유럽통신 시장의 보호가 아닌 개방을 의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유럽시장 자유화가 전세계 통신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4. CCITT (의장 Dr. Theodor Irmer 발표)

88년 멜버른 총회에서 결의된 "The spirit of Melbourne"의 기본원칙인 현대화, 융통성, 능률, 협력 등을 바탕으로 CCITT가 기능별조직, 문서체계, 작업분산화, 합리적회의지원 등 많은 개선을 꾀하여 왔으나 아직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개선내용중 주목할 만한 것은 4년 마다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발간되던 권고집을 서면결의라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 결의되는대로 즉시 발간하여 신속한 표준발행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또, Irmer 의장은 지금까지의 기술지향의 표준화에서 관리 및 시장지향의 표준화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의 수직조직위에 수평조직으로 '과제관리팀' 신설과 각 단체의 관리분야를 참여토록하여 결합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상위조직으로 '전략검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CCITT는 최근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표준화 기구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규칙 및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0년 2월 미국 T1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지역 전기통신 표준회의에서 결의한 세계 표준관리를 위한 특별그룹과 전자정보교환을 위한 특별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급속한 통신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한 표준제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각 기구의 주요 현안문제이었으며, 표준제정의 신속성 면에서 지역표준화 기구의 활동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CITT는 내부의 운영개선 만으로는 그러한 신속성의 확보가 어려워 지역표준화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ETSI의 경우는 유럽의 20개국이 참여하는 기구로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ETSI의 표준이 EC의 채택으로 강제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CCITT와의 관계 정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향후 CCITT 활동에 지역표준화 기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지역표준화 기구와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그들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최근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90. 9. 7 「전자신문」에 관련기사 보도)